

선교편지 77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집안, 그리고 바깥, ... 이곳에서 수십 대를 이어온 필리피노들은 이 습한 공기, 이 더운 날을 어떻게 극복하며, 긴 세월을 보내었을까? 나는 조금만 더워도 헉헉거리고, 몸이 쉬 피로해지며, 더운 시간 2시간의 예배가 끝나면 가슴도 조여 오고, 몸도 꼭 다문되어서 누워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음식도, 더위도 극복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적응도 안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어린이 여름성경학교(DVBS)가 지난 5월 23~24일 양일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라... 찜통같은 예배당에서 오전, 오후 네 번의 공부에 참여해준 학생들이 고맙고, 가르친 교사와 보조 교사들, 그리고 뜨거운 부엌에서 요리를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For God's Victorious Next Generation”**였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 특별히 후원해 주신 이재구 장로님과 노순남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역자 교회 33주년 기념 초청 설교(5/25) : 바타안 마리벨레스 장로교회

2005년부터 목회동역자로 함께 일하였던 Norman Bayogos 목사님의 초대로 마리벨레스 장로교회 33주년 기념예배 초청 설교자로 찾아갔습니다. (앙헬레스에서 차로 3시간 거리). 더운 날씨에 작은 예배당이 비좁아 마당에서 예배를 진행하여서 몸은 지쳤지만, 필리핀 전도와 세계선교를 함께 이루어갈 좋은 협력자들이라 믿고,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 3월에는 놀만 목사님도 저희 섬기는 암미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속한 필리핀 좋은 선교회와 자매노회인 서울서노회 목사 장로님 수련회로 필리핀 방문해 주셨고, 지난 5월 12일 카비테에서 교제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총회세계선교부의 각노회와 현지선교회의 자매결연으로 맺어진 서울서노회와의 만남이 지속되고, 좋은 협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부부선교사 수련회를 지원도 하였고, 다른 나라 선교를 돌아볼 때도 지원을 해주셨고, 따갈록 찬송가 출판도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목사 장로 70여명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지역도 돌아보시고, 교제도 함께 하였습니다. 노회회원들과 선교현지에서의 만남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6월 첫주일 주일 성찬식

한국방문과 손님 방문으로 인해, 4월과 5월 성찬식을 하지 못하였는데, 3개월 만에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몸, 한 소망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선교사 가정 이사 4/30

지난 8년간 앙헬레스 티목 빌라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집이 오래되었고, 흰개미가 가구를 갉아먹어서 급히 집을 구했습니다. 클락 경제 특구 안에 있는 한인들이 많은 the village 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보다 경비가 더 좋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26년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 성경공부, Women and youth



장년, 매주 화요일 오후



청년, 매주 화요일 저녁

우리 놀스빌 암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기를 애쓰며, 예배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올해의 표어도 "예배는 우리 영적 능력"이라 세우고 예배 참석이 큰 능력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유병국 좋은 선교회 회장 사역지 방문(6/4~5일) : 라구나

우리 좋은 선교회 12가정을 섬기는 회장, 유병국 선교사님 집을 최동아 선교사 내외, 김정희 선교사님과 같이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유선교사님이 동 사무소 건축을 위해 사역지 땅 일부를

헌납한 땅과 Governor, Mayor, Congressman, 등 지역 유지들이 동에 모여 동사무소 건축과 농구장 건축의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선포식이 있어서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선교사가 함께 동참하는 좋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좋은 선교회 동역자들께서 이사한 저희집을 방문 해주셨습니다. 6월 12일

유병국 선교사, 이성규 선교사, 최동아 선교사, 유연석 선교사, 내외분들



6월 마지막 주는 발루반 암미교회를 방문하여, 교제하며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약한 저희 내외를 붙들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7월, 클락에서 김길연-김혜정 선교사드림

기도제목:

1. 선교사의 나약한 육체를 위해
2. 섬기는 암미교회의 성장을 위해
3. 성경공부하는 부인그룹과 청년그룹(주일학교교사)를 위해

4.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
5. 발루반 암미교회 교역자를 위해(현재 알멘드라스 교회목사님이 돌봄)
6. 알멘드라스 장로교회 레네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